



현금 없다. (株) 살 수 있다. (住) 살 수 없다

1. 현금 없이도 살 수 있는 주식

- 1/6일 KOSPI 지수 장중 3,000pt 돌파
- 11월 +14.3%, 12월 +10.9%에 이어 1월에도 KOSPI 상승 지속
- 증시 상승을 이끈 것은 개인의 수급
- 고객예탁금, 신용융자 잔고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

2. 공매도 재개여부 불투명, 반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 빌려서 사는 것은 막지 않았지만, 빌려서 파는 것은 막혀있다
- 우리나라 증시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3번째
- 08년, 11년 모두 증시가 정상화된 이후 공매도 금지 해제
- 3월 1,714pt 에서 시작된 공매도금지는 2,400pt 돌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연장

3. 넘치는 유동성, 쏠림현상의 심화

- 새해가 되며 대주주 요건에서 자유로워진 개인의 매수 재개
- 기관, 외국인의 수급영향력 감소한 가운데 개인 순매수는 대형주에도 영향
-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SDI는 1/4일 7% 이상의 상승 동반되며 3조원 이상의 시총이 증가
- POSCO, 삼성SDS, 삼성물산, LG전자, SK등도 하루만에 1조 이상 시총 증가
- 5% 이상 상승 동반된 1조 이상 시총 상승 - 3거래일 간 14회 발생



주식시장 투자전략

1. 현금 없이도 살 수 있는 주식

1/6일 KOSPI 지수는 개장 직후 급등하며 3,000pt를 돌파했다. 이 소식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고, 언론은 이를 앞다퉈 보도했다. 종가는 전일보다 하락했지만, 3,000pt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돌파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KOSPI 지수는 11월 +14.3% 상승한 데 이어 12월에도 +10.9% 상승했고, 1월 들어서도 상승중이다.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악재 보다는 바이든 당선, 백신 개발 및 집중, 개선세가 뚜렷한 교역 데이터 등 호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다.

증시 상승을 이끈 것은 개인의 수급이었다. 작년 3월 당시 30조원 내외였던 고객예탁금은 현재 70조원에 근접해 있다. 다양한 경로로 풀린 유동성은 대규모 IPO를 계기로 증시에 유입됐고,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역시 사상 최대로 증가한 신용용자 잔고다.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신용거래는 금지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신용거래가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이 역시도 개인의 유동성의 일부로 판단해야 한다. 1/5일 기준 신용용자 잔고는 KOSPI, KOSDAQ 합계 2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차트1] 3월 당시 30조원 내외였던 고객예탁금은 현재 70조원에 육박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신용용자 잔고 사상 최고치 돌파 KOSPI, KOSDAQ 모두 10조원에 육박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2. 공매도 재개여부 불투명, 반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증시는 급등했고, 신용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 3월 금지된 공매도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빌려서 사는 것은 막지 않았지만, 빌려서 파는 것은 막혀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첫번째는 금융위기 당시였던 08년, 두번째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던 11년이였다.

첫 번째 공매도 금지는 08년 10월 KOSPI 지수 1,439pt에서 시작됐고, 이후 938pt까지 하락했던 KOSPI지수가 1,400pt를 회복한 09년 5월 해제됐다. 두 번째 공매도 금지는 11년 8월 10일에 시작됐다. 8/1일 2,170pt 였던 KOSPI 지수가 6거래일 간 -17% 하락하며 1,806pt를 기록한 다음날이었다. 그리고, 3개월 후 KOSPI 지수가 1,900pt를 회복하는 등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이자 해제됐다. 두 차례 모두 직전 고점과는 별개로 공매도 금지를 시작한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 이후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3월 1,714pt에서 6개월간 금지된 공매도는 KOSPI 지수가 2,400pt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추가 연장됐고, 3,000pt를 돌파한 현재도 해제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개인투자자의 막대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 현 상황에서 공매도는 정치적 이슈이기도 하다.

[차트3] 공매도 제한은 이번이 3번째. 앞선 두 번의 공매도 제한 기간을 합친 것 보다 오랜 기간 공매도 금지 중 공매도 제한 이후 KOSPI 지수는 +73%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코드		1차 (글로벌 금융위기)	2차 (유럽재정위기)	3차 (코로나19)
기간		08.10.01 ~ 09.05.31 (8개월)	11.08.10 ~ 11.11.09 (3개월)	20.03.16~21.03.15 (12개월 예정)
금지배경		- 리만 파산(9/15) - 美증시급락 (9/29일 -8.1%) - KOSPI 지수 1,400pt 하회	- 유럽 재정위기(11년 6월) - 美 신용등급강등 - KOSPI 급락 (8/2~9 6거래일 -17%)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 직전 1개월 KOSPI -21%
KOSPI 지수	금지기간 수익률	-3.0%	+5.6%	+73.1%
	금지시점	1,439.67pt	1,806.24pt	1,714.86pt
	기간 중 저점	938.75pt	1,652.71pt	1,457.64pt
	종료시점	1,395.89pt	1907.53pt	2968.21pt(1/6일)
비고		금융주 공매도 지속	금융주 공매도 지속 (~13.11.13)	20.09.15 이후 6개월 연장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넘치는 유동성, 쓸림현상의 심화

지난 11월 상승과정에서 호재로 작용했던 또 하나의 이슈는 10억 대주주 요건의 유지였다. 시장은 이에 환호했고, 지수는 11월~12월 +20% 이상 상승했는데, 단순 계산으로 발표 이전 10억을 보유했던 주주는 12월 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2억원 이상을 매도했어야 했다.

새해가 되며 대주주 요건에서 자유로워진 큰 손들이 재차 주식 구매에 나선듯 하다. 개인은 3거래일 만에 KOSPI에서만 5.2조원을 순매수했는데, 대형주에 대한 매수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 영향력이 감소한 가운데 개인의 대규모 순매수는 대형주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가총액이 하루만에 1조원 이상 증가하는 종목이 크게 늘며 쓸림현상이 심화된 모습이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SDI는 1/4일 7%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총이 3조원 이상 늘었고, POSCO, 삼성SDS, 삼성물산, LG전자, SK도 하루만에 1조원 이상의 시총 증가를 겪었다. “5% 이상 상승 & 1조 이상 시총 상승”은 3거래일만에 14차례 발생했고, 이 중에는 2조원 이상의 시총 상승도 7차례 포함돼 있다.

[차트5] 11월 이후 일간 10% 상승 & 시총 1조 증가 종목
13개 종목에서 총 20회

코드	종목	일자	시총증가 (조원)	상승률 (%)	비고
A068270	셀트리온	12/29	4.6	10.1	
A066570	LG전자	12/23	4.5	29.6	2회(12/28)
A096770	SK이노베이션	1/4	3.8	21.6	2회(11/9)
A091990	셀트리온HC	12/7	3.4	14.8	2회(12/4)
A012330	현대모비스	1/4	3.0	12.3	
A018260	삼성에스디에스	1/5	2.1	14.3	
A019170	신풍제약	12/2	1.8	23.3	2회(11/13)
A003550	LG	1/4	1.6	10.7	2회(12/23)
A015760	한국전력	12/17	1.5	10.2	
A068760	셀트리온제약	11/25	1.2	25.3	2회(12/3)
A090430	아모레퍼시픽	12/9	1.2	10.7	
A003670	포스코케미칼	12/9	1.1	15.9	2회(1/4)
A018880	한온시스템	11/19	1.0	14.4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5% 이상 등락 & 시총 1조 이상 증가/감소 건 수
증시의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크게 증가

	거래일	5% & 1조원		5% & 2조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1월	20	6	3	2	0
2월	20	6	6	1	1
3월	22	46	39	14	8
4월	20	18	6	1	2
5월	19	17	3	2	1
6월	22	29	13	10	3
7월	23	17	5	6	1
8월	20	30	13	10	2
9월	21	5	7	1	5
10월	19	6	6	4	1
11월	21	23	3	10	1
12월	21	26	8	12	3
21년1월	3	14	2	7	0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